

학교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afety Measures for School Safety

김 태 복[†] · 이 영 석^{*}

Kim, Taebock · Lee, Youngse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ive people from expert and to make effort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government after su-chel, kim case. it is put out school strengthened safety measures continuously however external danger has increased. It is necessary to prevent reevaluation of safety measures and improvement go through take the most basic safety measures, changing awareness to the external danger and reduce the loss to a minimum. There are some resolution to be effective management of guard and way to expand, application of CPTED technique and installation of school fence, liaison between increasing CCTV and equipment, improvement on operational school safety management.

Keywords School, Safety, Safety Accidents, School Safety Measures

요 지 본 연구에서는 김수철 사건이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노력 및 정부의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학교 안전강화 대책을 연이어 내 놓았지만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예방하고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대책의 강구와 인식의 변화를 통한 안전대책의 재평가와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따라서 학교 안전대책 방안을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제도와 학교 보안관제도 그리고 더 나아가 경비업체와의 협력과 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학교 안전을 도모하고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CPTED의 기법을 활용하고 학교 외곽에 외부인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담장을 설치하고 실제적인 감시와 통한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CCTV의 확충과 장치를 보완을 통하여 각각의 안전대책 방안을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핵 심 어 학교, 안전, 안전사고, 학교 안전대책

† 교신저자 : 정회원, 대림대학교 의전경찰학과 외래교수

E-mail : ktb1388@empas.com

TEL : (010)9389-1388 FAX : (031)8020-2882

* 정회원, 경북전문대학교 경찰경찰행정계열 교수

1. 서론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활을 이롭게 하는 문명의 이기들이 넘치는 시대이다.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기계나 시설 또는 대체물질, 신기술에의 의존성은 불가피하게 점차 증대하고 있다. 세상을 더 효율적으로 인간의 통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근대화 과정이었지만, 우리사회의 위험은 인간의 예상과는 달리 점점 통제되지 않고 있다. 그로인하여 안전에 대한 욕구는 근본적으로 신체 및 감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욕구로서 본인에게 해가 끼쳐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김태환 등, 2011).

이러한 안전욕구 충족을 위한 현대인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대형 참사와 아직도 끊이지 않는 각종 안전 사고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 못지않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사고들은 “인간존중”에 대한 우리의 전통 의식과 가치관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던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은 ‘안전’을 위한 도전과 신념의 결연한 다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학교 안전 사건사고에 대한 논란과 실제 외부인의 학교에 침입한 사건 중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학교 안전대책에 대하여 주목하게 한 사건은 2011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던 여자 어린이가 납치·성폭행당한 이른바 ‘김수철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로 큰 주목을 받았다.

김수철 사건이후 정부는 제발 방식을 다짐하며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와 학교 내외 주변을 순찰하고 학생을 지도 할 수 있는 배움터 지킴이와 학교 보안관제도, CCTV 설치를 통한 학교 주변의 감시 강화 그리고 치안 위험 지역에 있는 학교 1000곳을 골라 경비실을 설치하고 출입자동보안장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실시 하였다. 또한 청원경찰을 배치해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재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다. 이러한 한 실정에서 또다시 2011년 외부로부터 침입을 통한 초등학교에서의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학교 안전대책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가져 왔으며, 외부로부터의 침입으로 학생들에 대한 위협은 언제든 발생할지 모르는 실정에 노여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악영향을 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대책의 강구와 인식의 변화를 통한 안전대책의 재평가와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보호되어야 할 학생들은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김수철 사건이후 정부와 각계계층의 전문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위험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대책으로는 위험요소와 학생들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학업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듯이 학교 안전대책의 성과도 일회성이 아닌 현실과 학교 상황에 맞추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다양한 안전대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 사건사고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현실에 부합되는 내용이 아닌 형식적 대책과 실적 위주와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제의 심각성과 높은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할 때 안전대책에 대한 재평가와 개선방안의 제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중재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Hall-Long et al., 2001).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학교 및 정부는 다양한 안전대책보다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의한 위험 제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재평가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여 외부로부터의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는 학교 안전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안전과 학교 안전대책의 개념

웹스터사전의 안전(security)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안전한 상태가 성질, 위험으로부터 자유스러움(freedom from danger), 안전

(safety), 공포나 불안으로부터 자유스러움 보호(Protection), 스파이 행위나 파괴행위(sabotage), 공격이나 도망에 대하여 보호조치가 취해진 것, 안전이 임무인 조직이나 기관을 말한다(김두현 등, 2002). Table 1에서보는 것처럼 그 의미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전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평온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며, 안전의 용어가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들을 추구하기 위한 방해되지 않는 환경과 평온함, 범죄의 통제와 유사한 전통적인 방법들(경비원, 울타리, 경보장치)에 한정된 좁은 의미로서 사용된다(김두현 등, 2002).

학교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목적 하에 전문직 교사가 집단으로서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도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 또는 기관이며, 안전은 인체에 유해한 조건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 즉,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인간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뜻한다. 그러므로 학교 안전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학생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인되어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학교안전중앙공제회, 2010).

학교안전이란 아동 및 학생이 학교생활 중에서 어떻게 안전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체득시키고 또 장래 사회인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안전행동의 소지(素地)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말한다.

사고를 미연에 막으려면 인명존중의 윤리를 투철하게 하고 또한 안전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대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학교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건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 안전대책이란 위협이 없도록 대응하는 방책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안전대책이란 위협이 없도록 대응하는 방책이라는 안전대책의 사전적 의미를 근거로 “안전대책은 사람의 신변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위해 행위나 심리적 압박, 시설물 안전사고 등 간접적인 위해요인을 제거, 차단, 와해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사전·사후의 예방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1. 안전용어의 비교

영문 표기	Safety	Security	
	자연발생적인 요인 (Naturally Occurring)	인간유발요인 (Human Caused)	
		고의성	비고의성
개념	우발적이거나 또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피해(damage) 또는 파괴로부터 인명과 자산을 보호	의도적이거나, 또는 악의 있는 행위나 상황에 의한 피해 또는 파괴로부터 인명과 자산을 보호	
판단기준	·비의도적(unintentional) ·우연적(accidental) ·자연적인(natural) 행위(act) 또는 상황(circumstances)	·의도적(intentional) ·고의적·계획적(deliberate) ·악의적(malicious) 행위 또는 상황	
적용대상 및 범위	·우발적 사고(accidental events) ·차량 안전(vehicle safety) ·작업장 위험(hazards at work) ·신체적·심리적·사회적·물리적 위해(危害)(physical-psychological-social-material harm) 등	·테러(terrorist threat or attack) ·탈취(hijacking) ·반달리즘(vandalism) ·범죄활동(criminal activity) ·불법행위(illegal act) 등	
현행 주요 한글표기	안전(安全), 안전성(安全性), 위험방지장치, 안전장치	안전(安全), 보안(保安), 안보(安保), 안전보장(安全保障), 안심, 보호, 방호, 경비부문	

2.2 학교 안전대책 방안

본 장에서의 학교안전 대책 방안은 학교 안전에 관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전대책에 대해 모두 열거하지 않고 본 논문에서 주요 논점으로 다루고 있는 외부인의 침입을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현 안전대책 중 기초적 물리적 대책에 국한하여 안전대책 방안에 대하여 전개하였다.

1) 배움터지킴이

School police는 갑자기 생겨난 제도라기보다는 선진국에서 청소년 비행 및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청과 함께 대처해온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빠른 곳은 1964년 로스엔젤레스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영국의 경우도 1974년 런던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캐나다는 이보다 더욱 앞선 1957년부터 토론토에서부터 시작하였고 뉴질랜드 또한 1974년부터 시행

하였다. 이렇듯 이 제도에 대한 도입의 역사는 이미 50년여가 된 어느 정도는 선진국에서 검증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10여년전부터 소위 “소년서포트센터(boys support center)”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그 실효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청소년들의 문제는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범죄건수도 비례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따라서 스쿨폴리스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경찰청과 교육청의 네트워크적 대처방법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시행하는 지역에 따라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 “school resource officer”, “학교-경찰 연계 제도”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이미지의 새 이름을 공모하여 지난 2005년부터 “배움터 지킴이”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제도는 퇴직교원 및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단속과 함께 합동교외지도도를 하는 제도이다(강복순, 2005). 아울러 school police는 2005년 5월 2일부터 부산지역 7개 시범운영학교에서 시행하였다.

2) 학교보안관

학교보안관은 학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도하며,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을 하는 것이다. 학교보안관이 배치되면 교내 폭력과 유괴, 협박, 감금, 성폭행 등 학생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인 오전 7시30분부터 방과 후 학교가 끝나는 오후 9시30분까지 근무한다. 그리고 하루2교대로 일하며 방학과 토요일, 재량 휴업일에도 학교를 지킨다.

평균 연령 50세로 대부분 전직 경찰이나 군인, 교사 출신인 학교보안관들은 서울 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51곳에 학교별로 2명씩 배치돼, 등교 시간대에서부터 방과후 학교 종료 때까지 하루 2교대로 일한다. 이들은 지난 한 학기 동안 교내외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263,024회, 학교별 취약시간 학생 등하교 지도 및 교통 안전지도를 101,710회 각각 실시했다.

학교보안관들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의 방문일지 작성과 출입증 패용을 의무화하는 등,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 학교주변 차량 통제와 횡단보도 교통 지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3) CCTV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특정 건축물 또는 특정 시설 등에서 유선 텔레비전을 이용해 영상을 전달하는 장치, 은행 등 보안이 필요한 곳에서 이용하고 있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학교 내외 사각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으며, 외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 줌으로써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학교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과 사후 대처 및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현재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 CCTV의 설치를 확대 하고 있는 추세이다.

4) 경비실 설치

정문에 경비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학교에 머물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배움터지킴이나 학교보안관이 경비실에 상주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경비실에 CCTV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여 외부인이 허가없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하여 경비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5)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허가된 사람만이 학교 내부로 들어 갈 수 있게 하교건물 입구에 지문인식기나, 카드,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인이 접근을 통제하여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접근을 어렵게 하기위하여 최근 운용하고 있다.

2.3 학교 안전대책 운용방식

학교 안전대책은 하나하나의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며 운용되어 지고 있으며, 하나하나의 안전대책은 다시 학교 내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로서로의 안전대책의 취약점을 보호하고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각의 안전대책 간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안전대책을 운용하고 있다.

3. 학교 안전 사건사례와 문제점 제기

3.1 학교 안전 사건사례

최근 발생한 학교 안전과 관련된 외부 침입으로 인한 사건사례를 학교 안전대책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학교안전 사건의 경위와 주요내용은 인터넷 및 주요일간지의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 2011년 충북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 사건

“평일 대낮에 초등학교 화장실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 뒤 금품까지 빼앗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내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1년 12월 02일 오후 1시 30분쯤 근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살 이모 군은 감기 증세가 있다며 병원에 간다며 학교를 조퇴한 후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 작은 문을 통해 학교로 들어갔다. 잠시 뒤 한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A양을 성폭행하고 현금 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피의자는 허물어진 담장으로 아무런 제지 없이 학교 안에 침입해 충격적인 사건을 저질렀다.”

“A양은 다른 학생들이 귀가한 뒤 청소를 하느라 혼자 남아 있었다. 해당학교는 교육당국이 지정한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출입문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담장이 없다보니 지킴이와 곳곳에 CCTV 12개가 있었지만 누구도 피의자의 침입을 확인하지 못해 이 군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 사건 발생 당시는 금요일로 학교 경비 근무자와 배움터 지킴이들, 담임선생님도 있었다.”

이 사건은 2010년 김수철 사건이 발생 후 또 다시 발생한 학교 안전에 대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학교 안전대책의 관점에서 특히 이 사건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어 학교 내 출입문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출입 통제 시스템의 운용이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2명의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 안전대책의 수행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학교 안전에 대한 업무 행동 매뉴얼의 부재가 지적되고 그리고 곳곳에 CCTV 12대는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인의 식별을 통한 접근의 방지는 모니터링 전문 인력이 없어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

2) 2011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여아 성추행 사건

2011년 2월 설 연휴 때 7세 여아가 학교 내에서 성추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수철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상주시키고 CCTV를 대폭 확충하는 등 갖가지 대책을 내놔음에도 수개월만에 범행 수법이 거의 똑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한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연휴를 맞아 부모와 함께 성북구 소재 친척집을 방문한 A(7)양은 오후 4~5시쯤 사촌오빠 2명과 함께 인근 초등학교에 놀러갔다.”

“사촌오빠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놀고 있는 사이, 학교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A양에게 노모(49)씨가 다가왔다. 노씨는 A양에게 ‘예쁘네’라며 접근해 놀이터 구석 벤치로 데려가 자신의 무릎에 A양을 앉혀 놓고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운동장에 있던 사촌오빠들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A양은 겁에 질려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집에 돌아온 A양은 자신이 당한 일을 부모에게 털어냈고 부모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학교 안에는 총 5대의 CCTV가 있었고 이중 1대에 노씨가 A양을 끌고 가는 모습이 잡혔지만 사각지대를 고루 비치지 못하고 하반신만 찍혔다. 경찰은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동종범죄 전과자 130여명을 일일이 조사한 끝에 노씨를 검거했다.”

이 사건은 대낮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이 납치돼 성폭행 당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만이다. 김수철 사건 이후 배움터 지킴이와 CCTV의 확충 등 갖가지 대책을 내놔음에도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갖가지 안전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이 보여 주고 있으며, 가장 근본적인 허가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2011 김수철 사건

“2010년 6월 7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모 초등학교 정문으로 들어간 뒤 9시 51분경 후문을 통해 등교하던 A양을 보고 운동장에서 컴퓨터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에 나온 8세 A양에게 ‘꼬마’라고 부르며 “이리와봐”라고 말을 건 김은 곧바로 평소 공사장에서 기공업무를 하며 갖고 다니던 문구용 커터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다. “소리치면 죽이겠다, 조용히 하고 날 따라와라”고 말한 김은 마치 자신이 A양의 아버지인 것처럼 왼쪽 팔로 A양의 목덜미를 감싸 안았지만 이는 손에 들린 칼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그 후 범죄 현장으로 가는 길을 숨기기 위해 아이의 눈을 가린 후에 1k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였다. 그 후 피해 아동은 김이 잠이 든 틈을 타서 김의 집에서 도망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이 잠든 틈을 집에서 빠져 나온 A 양을 통해 납치 경로를 확인했고, 학교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보해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80명가량을 동원한 탐문 수사 도중 김이 발견된 것은 경찰 출동 5시간 만인 7시 부근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김은 A 양이 사라진 것을 알고 도주를 준비하며 잠깐 냉면집과 사우나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사우나에 가기 전 증거를 없애기 위해 A 양을 성폭행한 방안을 깨끗하게 치웠고, 자신의 몸도 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으로 들어가던 것을 경찰이 포착해 추격하기 시작했고, 격투 끝에 가까스로 체포에 성공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심하게 상처를 입었으며, 5~6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피해 아동과 부모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철은 범행 당일 밤에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검거 당시 칼을 휘두르고 심하게 저항하였는데, 이로 인해 경찰관 1명이 팔뚝에 상처를 입었고, 김수철은 자신에 대해서도 자해하였다. 그 후 범행 이틀 뒤인 9일에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안전지대가 아님을 깨닫고 학교가 범죄에 무방비로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통한 학교 안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검토와 각계각층에서 학교안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허가 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지적으로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제도의 도입과 CCTV의 설치가 가장 대표적이다.

3.2 학교 안전 사건사례

1) 경비인력의 문제

2010년 6월 7일 서울에서 8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으로 계기로 인한 학교의 허술한 안전관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각계계층과 교육과학기술부는 부랴부랴 이른바 ‘김수철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치안상태가 열악한 전국 초등학교 1,000곳을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다.

그러나 청원경찰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며 흐지부지되기 시작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민간경비 및 배움터지킴이로 대신하려 하고 있다. 결국은 청원경찰을 배치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수철 사건 이전부터 활용 중인 배움터지킴이나 민간경비 및 학교 보안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흉악범죄 예방에 턱없이 전문화된 인력이 부족하다. 평균 50대 이상에 최고 77세까지인 이들을 학교에 배치해 30대 안팎의 건장한 범죄자들을 어떻게 대항하고 제압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 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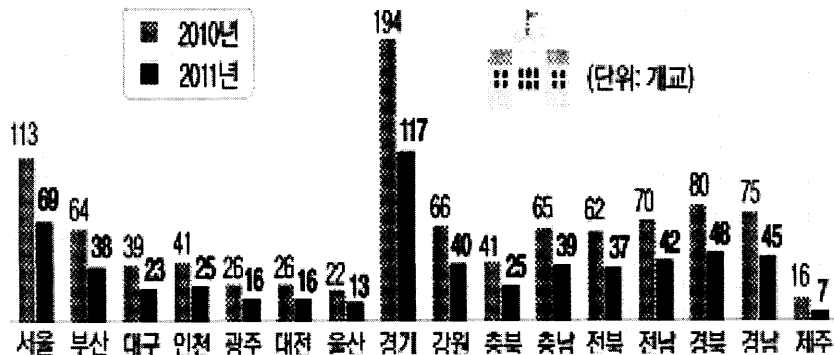


Fig. 1. 시·도별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현황

2) 학교공원화 사업의 문제

담장 없는 학교 사업(학교공원화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해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이 예산을 부담해 학교 담장 허물기를 주도했다. 2000년 이후 담장을 철거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1165곳이다.

이 중 올해 8월까지 펜스·CCTV 설치 등 후속조치를 취한 학교는 93곳(제주는 자료 미제출)으로 8.0%에 불과했다. 특히 성폭력 등 위험에 취약한 초등학교의 경우 '담장 없는 학교' 812곳 가운데 69곳(8.5%)만이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시도별로 보면 강원·경남·경북·대전·부산·울산·충남·충북 등 8곳은 후속 조치를 취한 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경북과 대전, 충남은 올해 들어 추가로 16개 학교의 담장을 허물었다.

그 외 지역에서 담장 철거 후 후속 조치를 마련한 학교의 비율은 전북이 119곳 중 2곳(1.7%)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4%)·전남(4.7%) 등의 순이었다. 대구는 담장 없는 학교 47곳 중 29곳(61.7%)이 펜스나 CCTV를 설치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인천은 21.7%, 경기 21.3%, 서울 17.8% 등이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외부인 출입에 취약한 '담장 없는 학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담장을 허문 학교들이 외부인 출입에 대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안전과 관련해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지나치다 싶을 만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학교 건물과 담장이 가운데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폐쇄형 구조로 학교 출입은 정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정문은 등·하교 시간에만 열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굳게 닫힌다. 그리고 학부모라도 안내 데스크에서 인적사항과 용무를 밝히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학교 내에서의 외부인의 위험에 대하여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공원화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교정을 개방하는 한국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2010년 6월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주범인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3) CCTV 설치의 문제

학교 안전관련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적 환경과도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인 문제점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감시하고 사후 대처할 수 있는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의 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의 부족과 경찰이 24시간 동안 학교 내와 주변을 순찰할 수 없는 여건을 고려할 때 CCTV는 24시간 1년 내내 위험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과 사후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 안전 사건사고에 대비한 CCTV 설치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학교 주변의 위험 지역과 사각지대를 고려하지 않은 전시적 CCTV의 설치와 확충은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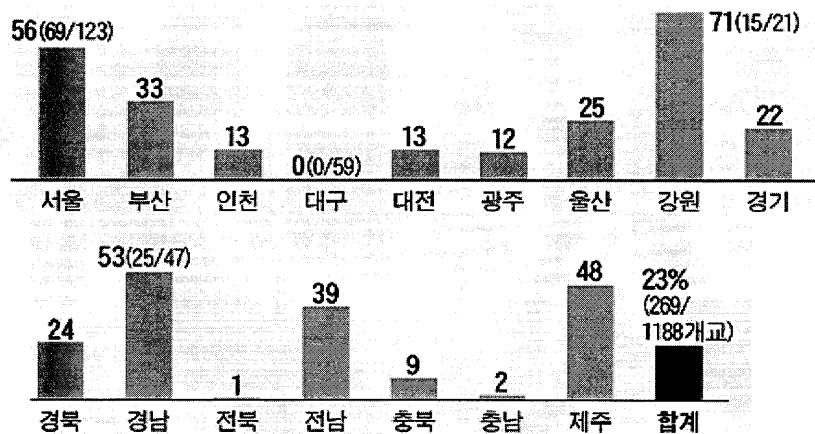


Fig. 2. 담장 없는 초등학교 중 외부인 감시용 CCTV가 없는 곳 비율 (단위: % 괄호 안은 외부인 감시용 CCTV 없는 곳 수/담장없는 학교 수)

외부인의 출입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담장 없는 초등학교 1188개 가운데 교문을 비추는 CCTV가 없는 학교는 269개(23%)에 달했다.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외부인 감시용 CCTV가 없는 비율은 강원도가 71%(21곳 중 15곳)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56%(123곳 중 69곳)에 달했다. 김수철 사건 이후 학교의 다양한 안전대책 중 CCTV의 설치와 확충을 계속하고 있지만 언론매체는 학교 내에서 주변에서 김수철 사건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는 김수철 사건이후 CCTV의 확충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활용의 미비,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활용을 위한 전문 모니터링 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CCTV가 설치되어 허가되지 않은 외부인을 통제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다른 학교 안전대책과의 연계 또는 네트워크를 이루지 않는 CCTV 설치만으로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교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을 것이다.

4. 학교 안전대책의 개선방안

4.1 경비인력의 효과적 운용 및 인력 확대 방안

서울시는 3월부터 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47곳에 등·하교 지도와 학교 순찰,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담당하는 학교보안관을 2명씩 배치했다. 전직 경찰관과 직업군인 등으로 구성된 학교보안관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한다. 학교에는 이미 교과부에서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도 있다. 하루 8시간씩 등·하교 지도와 학교 내의 순시·순찰 등을 통해 범죄 예방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배움터 지킴이나 학교보안관제도가 도입되어 각 지역과 각 학교마다 시행되고 있지만 1만여 초·중·고교 가운데 961곳이 학교 담장을 허문 상태여서 한두 명에 불과한 경비인력이 출입자를 일괄 통제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보통 한 학교당 두 명의 지킴이가 교대로 근무하는데 학교 순찰을 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사이 외부인이 얼마든지 학교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경비인력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의 경비인력으로는 점점 흉폭 해지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비업체와 연계 및 협력하여 전문경비인력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뉴얼을 통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매뉴얼은 업무 방법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행동 지침서이다. 학교 안전업무매뉴얼은 학교 안전업무 수행의 표준화, 전문화와 업무 품질도 향상을 위해 관리의 중점사항을 설정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항까지 기술하고 표현하여 신입사원은 물론 경력사원까지 숙지하여 해당 학교 안전업무의 품질향상은 물론 원활한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침서이다. 이것은 계약상의 약관을 이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비계획서와는 다르다. 업무매뉴얼은 실질적으로 경비원이 어떤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근무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지는 방법론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이론적 근거까지 제시하기도 한다(김태민, 2005).

최근에 발생한 각종 학교 안전관련 사건사고들의 발생원인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입각한 학교 안전업무가 운용되어진다면 사건사고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4.2 CPTED 기법의 활용과 학교 외곽 담장 설치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물리적 환경변화를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시키고 범죄대상에 인위적인 장애물을 설치하여 접근을 어렵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다.

학교의 경계 공간은 외부인이 학교에 진입해 범행을 시도하려는 걸 억제하는 제1방어선이다. 외부인이 지정된 출입 공간을 통해서만 학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담장을 두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 설계 단계에서부터 외부 담장을 투시형 구조로 세워 안팎에서 오가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교무실을 건물 중간층 한가운데에 두며, 교장실과 교감실을 범죄가 발생할 만한 곳에 배치하여 한다. 그러나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는 2001년 무렵부터 학교 담장을 헐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 ‘학교 공원화 사업’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교가 담장을 철거했다. 교과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의 20%인 1,180여 개 학교에 담이 없는 상태다. ‘김수철 사건’으로 교내 아동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기 전에는 전국 상당수 학교를 지역 주민들이 무시로 출입해왔다. 이에 대해 표창원 교수는 학생 보호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적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교사 학생 등 관계자와 정당한 목적의 방문객 외에는 아예 학교

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건축물과 주위 환경을 적절하게 설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 영국에서는 경찰청이 앞장서 방범환경 설계제도(SBD, Secured By Design)라는 표준을 만들고 이에 부합하는 건축 자재나 건축물을 인증해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학부모들도 학교 방문 전엔 학교 측과 약속을 잡아야 하고 방문자 대기실을 따로 두는 등 외부인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또한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인 방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학생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출입 절차가 필요하다.

4.3 CCTV의 확충과 연계 장치 보완

김수철 사건이후 정부 및 각계각층의 안전지킴이, CCTV 설치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침입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안전대책의 핵심 특히 CCTV의 적절한 설치는 범죄자의 침입으로 인해 범죄행위와 위협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쉽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안전지킴이에게 통보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기회와 범죄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최현식,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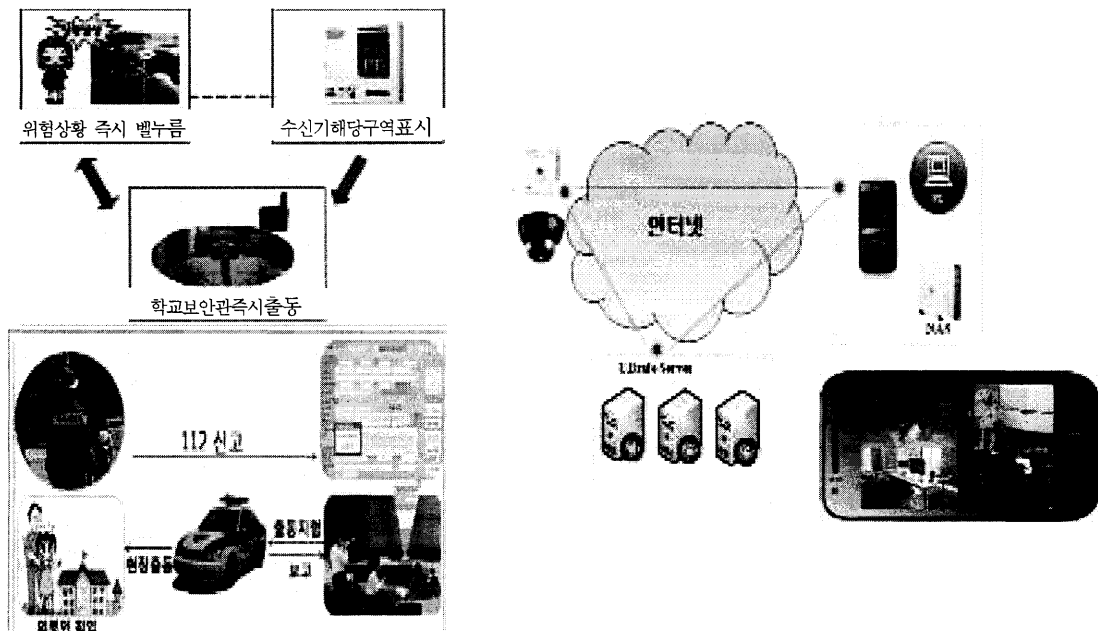


Fig. 3. CCTV와 연계한 학교 안팎의 비상벨 및 스마트폰의 활용

따라서 학교 주변의 사각지역 및 우범지역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Fig. 3에서 보는 것처럼 안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CCTV와 비상벨 및 스마트폰과 연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CCTV를 경비업체의 관제소와 연결하여 관제소에서 모니터링하고 위험상황 발견 시 공공기관과 경비원에게 연락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사전에 연계된 스피커를 통하여 외부인에게 침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운용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4.4 학교 안전대책 운용적 개선방안

학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대한노인회 등과 협의해 선발한 등하굣길을

점검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학부모로 구성된 안전동지회 등 각각의 안전대책 방안 하나하나가 학교의 안전을 위한 방안이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방안을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 등하 낫길을 점검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학부모로 구성된 안전동지회 등 최근 몇 년 사이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구성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화하고 효율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CCTV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경비실에 CCTV 관제 시스템을 두어 외부인이 학교 내부에 출입 시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의 연계를 통한 외부인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운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경비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CCTV관제 시스템을 두지 못한다면 각 학교의 연결하는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최근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학교 안전 사건사고에 대한 논란과 실제 외부인의 학교에 침입한 사건 중 가장 크게 주목 받으며 학교 안전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대책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게 한 사건으로 2011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던 여자 어린이가 납치·성폭행당한 이른바 ‘김수철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로 큰 주목을 받았다.

김수철 사건이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노력 및 정부의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학교 안전강화 대책을 연이어 내 놓았지만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예방하고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대책의 강구와 인식의 변화를 통한 안전대책의 재평가와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따라서 학교 안전대책 방안을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제도와 학교 보안관제도 그리고 더 나아가 경비업체와의 협력과 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학교 안전을 도모하고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CPTED의 기법을 활용하고 학교 외곽에 외부인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담장을 설치하고 실제적인 감시와 통한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CCTV의 확충과 장치를 보안을 통하여 각각의 안전대책 방안을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 [1] Hall-Long, B. A., Schell, K., Corrigan, V. (2001). “Youth safety education and injury prevention program.” *Pediatric Nursing*, Vol.27, No.3, pp.141-146.
- [3] 강복순 (2005).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4] 김두현, 최선태 (2002). 안전관리론. 백산출판사.
- [5] 김태민 (2005). 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학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6] 김태환, 강경수, 김태복 (2011).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프로그램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Vol.7, No.1, pp.51-63.
- [7] 최현식 (2008). 공동주택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8] 학교안전중앙공제회 (2010). 학교안전사고 예방 수행 방안에 관한연구.

- ▶ 논문접수일 : 2011년 11월 09일
- ▶ 심사의뢰일 : 2011년 11월 10일
- ▶ 심사완료일 : 2011년 11월 22일